

01

ICOLD 부총재 활동기

염경택 교수(前 ICOLD부총재) : 성균관대학교



1.서론

1972년 1월에 창립한 한국대댐회가 올해로 45살이 되었다. 완숙한 중년의 나이이다. 선진국 3만불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풍요로움은 홍수로 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어떤 가뭄에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바로 대댐의 덕분이란 것이다. 경제성장의 역사는 곧 댐의 역사이다. 그간 댐기술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선배님들과 한국대댐회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계 대댐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국제대댐회(ICOLD, 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는 1928년 창립되었다. 올해 부탄 왕국(Kingdom of Bhutan)이 100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니 1972년 67번째로 회원국이 된 한국대댐회도 그 역사가 깊다 할 수 있겠다.

가. ICOLD 부총재 당선

필자는 1984년 2월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 댐건설2부에서 신입업무를 시작하여, 물관리팀장, 댐·유역처장(前 댐관리처장), 수자원사업본부장(상임이사)을 역임하면서 자연스럽게 ICOLD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다목적댐의 안전관리 업무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댐 안전진단, 분석, 평가(노후화, 이상기후로 인한 수문학적 안정성) 방법과 기술은 언제나 눈앞에 놓여진 과제였다. 그러던 중 2007년 6월 제75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연차회의에서 “댐안전 위험성 평가·관리”에 대한 기초발표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ICOLD 기술보고서나 발표자료를 찾아서 배우려고 힘써왔다. 그러나 Hardware인 댐의 안전문제는 Software인 수문학(Hydrology)의 일부로 인식되어 학문적 발전은 물론 참고할 자료도 변변치 않은 실정이다. 댐 안전분야 (댐체, Hardware)는 기후변화, 지진, 댐 노후화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재난방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국가적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나 기술 수준은 미약한 편이다.

이유는 국내 댐산업이 斷續적이고 Hardware적 댐기술(조사설계, 건설, 댐안전관리)의 육성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유인책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한국 대댐 선배님들의 역량을 이어받을 때가 끊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중국과 일본이 그동안 각각 2회(1987, 2000)와 3회(1960, 1984, 2012)의 연차회의를 개최하면서 번갈아 아시아지역 대표로 ICOLD 부총재를 하고 있던 차에, 한국 최초로 윤용남 교수님이 2004~2007년 까지 ICOLD 부총재를 하신지 많이 지났으니 출마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는 이순탁 교수님과 김건호 한국대댐회장님의 권유가 있었다. 고민 끝에 2013년 6월 미국 Seattle 81차 연차회의 때 출마 했지만 콘크리트댐 분야의 세계적 거장인 캐나다 Mr. Andy Zielinski에게 패하였다. 하지만 국제무대에서의 경선은 큰 경험이 되었고, 그 후 계속된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2014년 6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제82차 연차회의에 다시 출마하였다. 결국 총 62개국 대표가 참석한 General assembly에서 중국 후보를 47 대 15로 이기고 국제대댐회 부총재(검직 Asia-Australasia 의장)로 당선되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경험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나. 국제대댐회 (ICOLD, 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 소개

2017년 현재 세계 100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ICOLD는 세계 댐기술자들이 모여 그동안 연구하고 개발한 대댐 기술과 경험을 발표하고, 어려움을 겪은 문제(기후변화, 지진, 극한 홍수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비영리 국제단체이다. ICOLD는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 같은 국제단체나 World Bank와도 협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댐의 안전한 운영·관리와 건설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ICOLD와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ICOLD의 주요기능과 성격>

- ICOLD는 Commission으로 committee와 뜻은 비슷하다. 하지만 Committee는 어떤 사안에 대한 단순 구성체로 법적 근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Commission은 사업의 목적을 위해 법이나 정관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점에서 Committee의 상위 개념이며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 ICOLD는 16개 조문의 정관(constitution)과 6조 21개항의 조례(By-Law)에 따라 사업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아 회원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100개 회원국이 가입되었고 비싼 회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ICOLD는 “댐내진설계위원회” 등 26개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가 있고, 세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주도한다. 약 4~5년에 한 권 정도 발간되는 기술위원회의 기술보고서(Bulletin)는 국제적 댐 전문가들의 경험과 이론 그리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발간되기 때문에 댐 기술의 寶庫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Bulletin은 세계 각국의

- 01. ICOLD 부총재 활동기
- 02. 2017년 국제대담회 기술동향
- 03. 제85차 국제대담회(ICOLD) 체코 Annual Meeting 참관기
- 04. 『제4회 이란 LTBD 2017』국제컨퍼런스 참관기

댐 기준이나 표준에 이용된다. 유료로 판매되지만 회원국은 저렴한 가격에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쉽게 얻은 기술과 간접 경험만으로도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위원회는 ICOLD의 꽃이며 존재 그 자체이다.

- ICOLD는 종합 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대댐(Large Dam)의 조사, 설계, 시공 및 운영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기술을 발전시키고 확산시켜 나간다. 특히 비연속적인 댐 산업의 특성상 이론적, 경험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하고, 비용과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댐 관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은 ICOLD를 잘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 ICOLD는 World Bank Group, 세계적 민간기업들과 댐 기술을 적극 확산하려 하고 있으나 ICOLD가 상업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주저하고 있다. 최근 ICOLD는 지진, 기후변화에 따른 댐재해와 노후댐의 안전문제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 ICOLD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는 주로 구조, 지반, 수리·수문, 환경, 경제, 기상 등 각 분야의 엔지니어, 교수, 연구원들이며, 건설사 및 댐설비 장치관련 기업들이 참여한다. 유럽은 오랜 기술적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의 기술적 해결 능력과 이론의 깊이가 뛰어난 편이다. 현업에서 실무적 경험을 많이 쌓은 엔지니어들이 교수로 가서 이론을 다시 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해결 능력이 좋은 것이다. 이들을 보면 그들의 시스템이 부럽고 스스로는 겸손을 다짐하게 된다.

<ICOLD 이사회>

- 이사는 8명으로 총재 1인, 각 대륙별 부총재 6인(Europe 2, America 1, Asia-Australasia 1, Africa 1, 6차석 1), 사무총장 1인으로 구성된다. 사무총장은 종업원 약 16만 명의 세계적 전력회사인 프랑스 전력청(edf)에서 파견한 직원이 역임하고 있으며 실질적 역할을 한다.
- 이사는 총재를 보좌하며 ICOLD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총재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한다.
- 이사회는 매년 약 3~4번 개최된다 (연초 파리 중앙사무국, 연차회의 개최지, 차기 연차회의 개최지 준비 점검, 기타 총재 특별 요청시).
- 이사회는 예산, 기술 위원회 운영, 차기 연차회의 점검, 발전방향 등에 대해 하루 8시간씩 이틀간 휴식시간 없이 작은 회의용 탁자에 머리를 맞대고 약 13~14개의 Agenda를 놓고 빈틈없이 의견을 묻고 토론하며 결정한다. 이런 열정적인 분위기는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아시아 대표라는 책임감 때문에 충분한 의견도 내고 APG 활성화 노력도 많이 해서 총재로 부터 종종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5대양 6대주를 대표하는 이사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국제화에 대한 체험과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

2.주요활동

가. 다짐과 목표

- 부총재 당선 후 조직과 예산도 없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단순하고 뚜렷한 목표 2개를 정하고 나니 오히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였다.

첫째, APG-ICOLD 의장국으로서 아시아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세우자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물산업 진출에 도움이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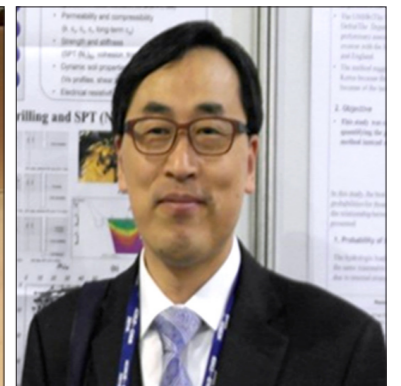
- 이 일을 위해 APG 사무국을 구성했고, 사무총장으로 정관수 충남대 교수(KNCOLD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사무국장은 신동훈 K-water 인프라안전연구소장이 맡았다. 사무국은 ICOLD의 정관(constitution)과 APG의 조례(by-law)에 따라 순수한 자원봉사(Volunteer)로 운영되었다.



APG 의장 염경택교수



사무총장 정관수교수



사무국장 신동훈국장

- 3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세분과 함께 약속한 당초의 다짐과 목표는 대부분 달성한 것 같다. 성품이나 전문성은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분들이다. 이외에도 K-water 박동순 박사, KNCOLD 박정민 부장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 01. ICOLD 부총재 활동기
- 02. 2017년 국제대담회 기술동향
- 03. 제85차 국제대담회(ICOLD) 체코 Annual Meeting 참관기
- 04. 『제4회 이란 LTBD 2017』국제컨퍼런스 참관기

나. ICOLD 부총재 활동

Annual Meeting(연차회의),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Congress(총회), 이사회에 참석해서 각종 현안과 운영방향을 협의했다. 이외에도 기술위원회 워크숍, 심포지움, 기술전시회도 참석해서 최신 댐 기술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귀국 후 즉시 KNCOLD를 통해 기술이 전파되도록 노력했다. KNCOLD에서도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서 이들 기술을 전파하고 있고 정책에 반영될만한 좋은 내용은 직접 국토부에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동안 많은 회의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만 추려서 소개하고자 한다.

① 제 83차 연차회의 및 25차 총회

- 장소 : Stavanger Forum STAVANGER, Norway, 15 June 2015

- 참석

- ICOLD 임원 : Adama NOMBRE (Burkina Faso), Michel DE VIVO
G. BASSON (South Africa), A. SCHLEISS (Switzerland/Suisse)
A. ZIELINSKI (Canada), J. POLIMON (Spain/Espagne)
K-T. YUM (Korea/Corée), L. LIA (Norway/Norvège)

- 주요안건

- 3개 신규회원국 승인 : 부오만, 모리셔스, 나미비아
- 총재 선출 (2015~2018) : Schieiss (스위스)
- 부총재 선출 (2015~2018) : Africa Zone – A. F. CHRAIBI (모로코),
The 6th post – Michael F. Rogers (미국)
- '19년 연차회의 개최지 선정 : 단독후보 "캐나다" 만장일치 선정
- ICOLD 웹사이트 개편 작업 및 라이브러리 접근성 개선에 대한 소개

② 제 84차 연차회의

- 장소 : Sandton Convention Center (SCC) JOANNESBURG, South Africa, 20 May 2016

- 참석

- ICOLD 임원 : A. SCHLEISS (Switzerland/Suisse), M. de VIVO (France)
A. ZIELINSKI (Canada), J. POLIMON (Spain/Espagne)
K-T. YUM (Korea/Corée), L. LIA (Norway/Norvège)
A.F. CHRAIBI (Morocco/Maroc), M. ROGERS (United States/États Unis)
- 참가국 : 69 (Annual Meeting), 62(GA)

- 주요안건

- 차기 총회(Congress) 질의 주제 채택 (18, 오스트리아 빈)
 - Question 1. 저수지 퇴사 및 지속가능한 개발
(Reservoir sediment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Question 2. 댐 안전 및 위험도 평가 (Dam safety and risk analysis)
 - Question 3. 댐 지질 (Geology and dams)
 - Question 4. 소규모 댐 및 제방 (Small dams and levees)
- 부총재 선출 (2016~2019)
 - Europe Zone : Michel Lino (프랑스) – the 6th post : Jianping Zhou (중국)
- By-law 개정
 - 총회(Congress) 개최 주기 변경 : 3년 → 2년
(미국대담회 및 캐나다대담회 위원들 제안 ⇒ 차기 연차회의 안건으로 미뤄짐)
 - ICOLD 개최국 : 같은 대륙에서 연속 개최불가 (APG의장, KNCOLD제안 → 통과)

③ 제85차 연차회의

- 장소 : Clarion Congress Hotel PRAGUE, Czech Republic, 7 July 2017

- 참석

- ICOLD 임원 : A. Schieiss (Switzerland/Suisse), M. de Vivo (France)
K-T. Yum (Korea/Corée) L. Lia (Norway/Norvège)
A.F. Chraibi (Morocco/Maroc), M. Rogers (United States/États Unis)
J. Zhou (China/Chine) M. Lino (France)
- 참가국 72(Annual Meeting), 56(GA)

- 주요안건

- ICOLD 신규회원국 승인

- 앙골라, 아프카니스탄, 부탄 대담회

- 부총재단 선출 (2017~2020)

- Europe Zone : Gerald Zenz, (오스트리아)
- 6th post (6차석 부총재) : Jean-Pierre Tournier (캐나다)

- 신규분과위원회 승인 - 총재 제안사항 (President's proposals)

- Technical Committee on Levees (2017~2020) : (의장 : Remy Tourment, 프랑스 / 부의장 : Elena Sossenkina, 미국)

- 01. ICOLD 부총재 활동기
- 02. 2017년 국제대담회 기술동향
- 03. 제85차 국제대담회(ICOLD) 체코 Annual Meeting 참관기
- 04. 7제4회 이란 LTBD 2017, 국제컨퍼런스 참관기

- Technical Committee on Resettlement due to Reservoirs (2017~2020) (의장 : Wang Xijiong, 중국 / 부의장 : 차후결정)
- By-law 및 Constitution 내용 추가
- 회원국의 가입, 자격, 권리, 연회비 등을 규정하는 내용 추가 : (By law : Part VII – Section V, W, X / Constitution : Section III)
- 사무국장 재지명 : Michel De Vivo (2018~2020) / 총재 A. Schleiss 제안

다. APG-ICOLD 의장(ICOLD 부총재 당연직 겸임) 활동

아시아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였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보다 많은 APG회원국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활발한 노력을 했다. 예를 들면 매년 APG 이사회에서 의장자격으로 2~3건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로 채택한 다음,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실행에 옮겼다. 우리들의 성과는 아시아 회원국은 물론 ICOLD에서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들 성과는 3.주요 성과와 실적에 소개했다.

APG 활성화는 회원국들에게 구체적 역할을 쥐서 소속감과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했으며, 이는 한국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아시아 회원국이 참여하는 APG 이사회는 주로 ICOLD 연차회의 기간 중에 열렸고, 대부분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유럽지역에 못지않게 내실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APG 소개와 그간의 이사회 주요안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APG of ICOLD (ASIA and AUSTRALASIA Zone) 소개

- 지역(대륙)내 댐 관련 협력 증진을 위해 “ASIA and AUSTRALASIA Zone”에 있는 ICOLD 회원국들이 ICOLD Constitution XII에 의거 REGIONAL CLUB 구성.
- APG (Asia Pacific Group of ICOLD)는 ASIA and AUSTRALASIA Zone의 Regional club을 말하며 2002년에 결성했다.
- 회원국은 25개국 이며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Armenia, Australia, China, Georgia, India, Indonesia, Iran (Islamic Rep. of), Iraq, Japan, Korea (Rep. of), Lebanon, Malaysia, Nepal, New Zealand, Pakistan, Philippines, Sri Lanka, Syria, Tajikistan, Thailand, Uzbekistan, Vietnam, Myanmar,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Kingdom of Bhutan)

① 2014 APG 이사회 (ICOLD 82nd Annual Meeting)

- 일시 : 2014. 6. 3 15:00~16:30
- 장소 : Kintamani 7, Bali Nusa Dua Convention Center (BNDDCC)
- 참석 : 11개국 39명 (Australia, Canada, China, India, Indonesia, Iran, Japan, Korea, New Zealand,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 의장 : Tadahiko Sakamoto (Vice President of ICOLD and Chairman of Asia Pacific Group)
- 사회 : N. Matsumoto (JCOLD)
- 주요안건 (정관 개정)
 - APG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 목적 신설
 - 명칭 : Asia Australasia Club of ICOLD → Asia Pacific Group of ICOLD
 - APG 의장 : 이사회 경선 투표 → Asia and Australasia Zone 현직 부총재가 겸임
 - APG 사무국장 : 의장국 대담회에서 선임

② 2015 APG 이사회 (ICOLD 83rd Annual Meeting)

- 일시 : 2015. 6.13 (Sat) 15:00~17:00
- 장소 : Meeting room Lysefjorden B, Stavanger, Norway
- 참석 : 9개국(Australia, China, Indonesia, Iran, Japan, Korea, Myanmar, Sri Lanka, New Zealand), 30여명
- 의장 : YUM, Kyung-Taek (Vice President of ICOLD and Chairman of Asia Pacific Group)
- 사회 : PARK, Dong Soon (KNCOLD)
- 주요안건
 - 前 ICOLD 부총재 겸 APG 의장 Dr. Tadahiko Sakamoto 감사패 전달
 - 7th WWF APG 세션 운영 결과 보고(Session T.1.4.6, Adaptable management strategies for ageing of water infrastructures (EXCO, Daegu, Korea, 4/13-14, 2015)
 - APG Logo 신규 제작 상정, 각국 의견 재수렴 후 상정 결정 (부결)
- 의장 제안 및 이사회 투표
 - 9th EADC & APG Joint Symposium 제안 (EADC 3국 동의) (3rd APG 심포지움 2007.6 St. Petersburg, Russia) : 승인
 - 7차 WWF T1.4.6 (Adaptable Management Strategies for Ageing of Water Infrastructure) Joint Declaration의

- 01. ICOLD 부총재 활동기
- 02. 2017년 국제대담회 기술동향
- 03. 제85차 국제대담회(ICOLD) 체코 Annual Meeting 참관기
- 04. 7제4회 이란 LTBD 2017, 국제컨퍼런스 참관기

제도적, 연속적 추진을 위해 ICOLD ad hoc committee (Development of adaptable technology on ageing of dams) 구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Working Group 구성 제안 : 승인

③ 2016 APG 이사회 (ICOLD 84th Annual Meeting)

- 일시 : 2016. 5.17 (Tue) 17:00~19:00
- 장소 : Sandton Convention Center Ballroom B3, Johannesburg, South Africa
- 참석 : 41 delegates from 9 member countries
- 의장 : YUM, Kyung-Taek (Vice President of ICOLD and Chairman of APG)
- 사회 : PARK, Dong Soon (KNCOLD)
- 주요안건
 - APG 활동 보고, 각 회원국 활동 보고
 - 9th EADC & 4th APG Joint Symposium(2016.9.26.~30, Sapporo, Hokkaido, Japan) 참가 독려
- 의장 제안 및 이사회 투표
 - APG 신규 로고 안건 재상정 (APG 지형을 닮은 사용 목적별 4가지 형태 제안) : 승인
 - APG 기술보고서 편찬, 내용 구성, Working 그룹 구성, 일정 등 추진 (안) 상정 : 승인
- 목차 : 각국의 극한 가뭄과 홍수 사례 등 7장으로 구성
- 일정 : 1차 초안 2016.12, 2차 초안 2017.3, 3차 초안 2017. 5. 최종 2017.5, 발간행사 85차 연차회의 프라하 2017. 7.



④ 2017 APG 이사회 (ICOLD 85th Annual Meeting)

- 일시 : 2017.7.4. 13:30~16:00
- 장소 : Hall Tycho, 3rd Floor, Clarion Congress Hotel Prague
- 참석 : 30 delegates from 10 member countries (APG 기술보고서 발간식 참가 초청인사 6명 A. Schleiss, President of ICOLD, J. Jia, the Former President of ICOLD, De Vivo, General Secretary of ICOLD, 전 ICOLD 총재 Adama Nombre, 전 ICOLD 부총재 Jose Polimon)
- 의장 : YUM, Kyung-Taek (Vice President of ICOLD and Chairman of APG)
- 사회 : Dong-Hoon SHIN (KNCOLD)
- 주요안건
 - APG Technical Report 발간식 (APG 의장 염경택 환영사, ICOLD A. Schleiss, 총재 축사, KNCOLD 전무이사 축사)
 - APG 사무국 활동 보고 (사무총장 정관수 2014.7~2017.7)
 - APG의장(염경택), 사무총장(정관수), 사무국장(신동훈) 이임식, 감사패 전달
 - 차기 5th APG 심포지움 차기 개최지로 이란 신청 및 승인

- 01. ICOLD 부총재 활동기
- 02. 2017년 국제대담회 기술동향
- 03. 제85차 국제대담회(ICOLD) 체코 Annual Meeting 참관기
- 04. 『제4회 이란 LTBD 2017』국제컨퍼런스 참관기

3.주요 성과와 실적

주요성과로는 APG 이사회에서 필자인 의장이 직접 의제를 제안했고, 채택된 의제들은 대부분 실행에 옮겼다. 약속은 지켜져야 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조직이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세 사람이 영어로 기획, 전문가 섭외, 서신연락, 세션 진행 및 마무리까지 다 해결해야 해서 고생이 몇 배 컸다. 그렇기 때문에 이룬 성과가 더욱 값지다.

▼ 주요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7차 WWF 주제별 과정 1.4.6 기획, 운영 (APG-ICOLD)

한국에서 개최되는 7th 세계물포럼에 ICOLD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논의 끝에 부총재 당선 직후 약 6개월간의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T 1.4.6 댐안전 분야 특별 세션을 기획해서 운영했다. 전, 현직 ICOLD 주요간부는 물론 많은 분들이 참가했다. 세션 후 "댐안전 공동 이행 선언문"은 추후 APG 주요 핵심 아젠다가 되었다. 부총재 당선 후 처음 한 일이라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 주제 : 수자원 인프라의 노후화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전략 (Adaptable Management Strategies for Ageing of Water Infrastructures)
- 2015.4.14.10:00~12:00 (DEC_309, DAEGU - EXCO, 3F Room 323)
- 발표 : Mchael Rogers(USA), Imo Ekpo(나이지리아), Kamala Laksiri(스리랑카), Liana Ardiles(스페인), Tatsuo Hamaguch(일본), Angela Klauschen(GWP)
- 참석자 : 약 150여명



- 의의

- 댐안전 공동 이행 선언문은 KWW WWB와 ICOLD 특별위원회 설치노력의 動因이 됨
- 역대 최대 규모의 ICOLD 전·현직 임원들이 참여하였으며 8th 브라질 WWF에서도 7th 때의 Case를 모범으로 기획 중 (7th WWF 때 WWF-ICOLD의 최초연대)

② APG-ICOLD 로고 제작

APG가 설립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시아지역은 APG를 상징하는 로고가 없었다. 다른 대륙은 각기 상징하는 로고가 다 있었지만 아시아지역은 얼굴이 없는 것이다.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십수 개의 로고(안)을 만들어 엄선하였고 최종안을 APG 이사회에 부의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다양해서 로고의 형상과 이미지 구상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결국 2015년 이사회에서 당초(안)을 제안했지만 이란의 반대로 채택이 되지 않았고, 2016년 다시 수정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 비로소 우리 APG도 다른 대륙에 비해 손색없는 로고를 갖게 되었다.




③ ICOLD By-law 수정 제안(채택) (한 대륙 연속 연차회의 · 총회 유치 금지)

2015년 83차 Norway 연차회의 시 "2018년 스위스 86차 및 26차 총회" 유치를 아시아대륙 인도 등에서도 신청했으나 "2017 프라하 85차 연차회의"에 이어 유럽이 연속 유치. 대륙 간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한 대륙 연속 회의 유치 금지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 안건 : Proposed ICOLD By-Law Change for Non-consecutive year of meetings in the same Region
- 일시 : 2016.2.19. - 제안자 : 염경택, 최계운(KNCOLD) - 수신 : ICOLD 사무국
- 내용 : 동일 대륙에서 연차회의나 총회를 연속 개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대륙이 공평한 ICOLD 회의 유치 기회 제공
- 결과 : 84차 General assembly에서 만장일치 통과 후 정관 개정

- 01. ICOLD 부총재 활동기
- 02. 2017년 국제대담회 기술동향
- 03. 제85차 국제대담회(ICOLD) 체코 Annual Meeting 참관기
- 04. 4회 이란 LTBD 2017, 국제컨퍼런스 참관기



TO: ICOLD Board
FROM: Gyeewon CHOI/Kyungtaek YUM
SUBJECT: Proposed ICOLD By-Law Change for Non-consecutive Year of Meetings in the Same Region

DATE: 19 February 2016
CC: Michel de Vivo

REF: ICOLD Board Meeting-Minutes, 25-26 January 2016, Paris

INTRODUCTION

This memorandum responds to a discussion by the ICOLD executive members of the Board at our meeting of 25-26 January 2016 [Reference] concerning a proposed change to the ICOLD Constitution to disallow consecutive years of invitations for future congresses and annual meetings in a same region.

The discussion of the Board on this topic was primarily concerned with discouraging the practice of conducting ICOLD Annual/Congress Meetings in the same region in sequential years. It was the feeling and consensus of the Board that ICOLD would be better served by providing equitable opportunities for all interested ICOLD countries to host meetings in varying geographical zones, with the spirit of concession as follows:

- Facilitating more appropriate shar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in timely manner to cope with pending issues in each reg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Zones.
-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to activate Regional Clubs' activities by which neighboring countries are able to gather more and share their common issues.
- More often sharing and understanding the various cultures and technologies in water sector of each Geographical Zones without bias in any zone.
- Strengthening and encouraging sense of belonging to ICOLD through proper opportunities of hosting ICOLD meetings, even if the national committee holding ICOLD meetings somewhat does not have enough capacity to operate congresses and annual meetings.

The specific intention of this proposed change to the ICOLD Constitution would be that any region would not be eligible to host two consecutive Annual/Congress Meetings.

Proposed Changes to ICOLD Constitution	
Original Text	Proposed Change
<p>PART I Section B INVITATIONS FOR FUTURE CONGRESSES AND ANNUAL MEETINGS</p> <p>(a).... In the event of two or more invitations having been received by the Central Office, then the final selection will, if necessary, be made by secret ballot at the General Assembly, the procedure being as in Section VII, sub-section (4), of the Constitution.</p> <p>Any unsuccessful acceptance by the Commission of an invitation from a National Committee to act as host for an Annual Meeting will be made four years in advance so as to provide adequate time for the National Committee to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p>	<p>PART I Section B INVITATIONS FOR FUTURE CONGRESSES AND ANNUAL MEETINGS</p> <p>(a).... In the event of two or more invitations having been received by the Central Office, then the final selection will, if necessary, be made by secret ballot at the General Assembly, the procedure being as in Section VII, sub-section), of the Constitution.</p> <p>To provide more equitable opportunities hosting annual meeting and Congress in each different geographical zones, consecutive year of invitations for future congresses and annual meetings in a same geographical zone shall not be allowed except in exceptional cases of unexpected or no invitation from other National Committees in different geographical zones etc.</p> <p>Any unsuccessful acceptance by the Commission of an invitation from a National Committee to act as host for an Annual Meeting will be made four years in advance so as to provide adequate time for the National Committee to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p>

To provide more equitable opportunities hosting annual meeting and Congress in each different geographical zones, consecutive year of invitations for future congresses and annual meetings in a same geographical zone shall not be allowed except in exceptional cases of unexpected or no invitation from other National Committees in different geographical zones etc.

④ 4th APG Symposium and 9th East Asian Area Dam Conference 공동 개최

APG 정관에 따르면 APG 회원국 간 기술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7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3회 심포지움 이후 중단되었다. 그러나 EADC 3국(한국, 일본, 중국)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 10년만의 APG 심포지움을 13개 APG 국가와 EADC 3국이 공동으로 일본 삿포로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④ - 1 제4회 APG 심포지움 및 제9회 동아시아 댐기술 교류회의

- 주제 : Innovative Technologies for Dams and Reservoirs Toward the Future Generations
- 일시 : 2016. 9. 26(월) ~ 9. 30(금)
- 장소 : 일본 삿포로 (Sapporo, Japan)
- 참가 : 13개국 332명 (한국 27, 일본 243, 중국 34, 인도네시아 11, 이란 4, 미얀마 1, 네팔 1, 뉴질랜드 1, 태국 6, 베트남 1, 캄보디아 1, 라오스 1, 말레이시아 1)



④ - 2 ICOLD-APG Roundtable Meeting

- 일시 : 2016. 9. 28 (Wed) 13:10~15:10
- 장소 : Crystal Room B, 2ndFloor, Royton Sapporo Hotel
- 참석 : APG 11개 회원국 (발표자 : Korea: K.S. Jung (Professor), Cambodia: H.E. Ponh Sachak (Director), Indonesia : John P. Pantow (Vice Chairman), Japan: Mr. Hamaguchi (Vice President), Laos: Keouduangchai Keokhamphui (Deputy Head), Malaysia: Lariyah Mohd Sidek (Professor), Nepal: Durga P. Sangroula (Professor))
- 주요안건
 - "동일 대륙 연속 연차(총회)회의 개최 불가" ICOLD 정관 개정(안) GA 상정 설명 (APG-KNCOLD 공동 발의)
 - APG 기술보고서 편찬 현황 소개 등



- 01. ICOLD 부총재 활동기
- 02. 2017년 국제대담회 기술동향
- 03. 제85차 국제대담회(ICOLD) 체코 Annual Meeting 참관기
- 04. 7제4회 이란 LTBD 2017, 국제컨퍼런스 참관기

⑤ APG Technical Report 편찬 및 발간 (2016.6 ~ 2017.6)

APG 국가 간 홍수, 가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질성을 공유하며, 유대를 강화(Solidarity)하기 위해 약 2년간 정관수 총장과 신동훈 국장의 헌신적 노력으로 APG 역사에 남을 귀중한 史料를 편찬하였다. 동 보고서는 2017년 프라하 연차회의에서 Anton SCHLEISS ICOLD 총재님을 비롯한 전, 현직 간부님들, APG 회원국들과 함께 발간행사를 크게 가졌다. (일본, 중국은 모국어 번역 판권을 요청하여 허가)

- 보고서제목 : Flood, Droughts and Role of Dams for their Mitigation in Asia-pacific Countries.
- 편집국가 : 12(Cambodia, China, Indonesia, Iran, Japan, Korea, Lao PDR, Malaysia, Myanmar, Nepal, Philippines, Vietnam)
- 내용 : 각국의 극한홍수, 가뭄 및 극복실제 사례 (Pages 411, tables 61, Fig.168, Ref. 202)
- 경위 : 2016.5 APG 의장 제안, '16.5 ~ '17.5 : 제출(각국), 제출독려, 편집교정(6개월, 정관수, 신동훈), 보고서 편집/디자인 (2개월), 발간(1개월), 발간행사 2017.7.4. (Clarion Congress Hotel Prague Prague, CZECH, 전현직 ICOLD 총재 외 30명), 보고서 발송(1단계 PDF ICOLD : 전 회원국, 2단계 보고서 2017.7~11, APG 회원국)

APG 여러 성과 중 가장 보람되고 힘든 일이었다. 한국 댐 전문가들의 자랑이라 생각한다. 편집과정에서부터 회원국들과의 대화와 협력, 최종 발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APG 리더십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APG 기술보고서 표지



ICOLD 간부들과 발간식을 마치고

4. 결언

- 댐 기술은 실제 현장에서의 반복적인 실험과 경험에 의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경험과 사례의 공유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댐 조사, 계획,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등 댐 관련 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ICOLD는 댐을 業으로 하는 전문가들에게는 중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한국대담회(다목적댐, 수력댐, 농업용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ICOLD의 축적된 기술을 익히고 정책방향을 공유하며, 국제적 댐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최근 ICOLD는 노후댐의 보수보강기술, 환경과 생물학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댐역할, 비금전적 사회적 댐기여도 평가, ICT를 이용한 첨단 댐안전 감시기술, 저렴한 댐건설 기술, Small 댐의 안전성, 조력발전 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국내 댐정책에 참고할 사항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도 새로운 댐사업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 한국대담회는 100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회비를 많이 납부하고 있고 매년 회의 참석인원이 약 30~40명 정도로 ICOLD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상대적인 권리 주장과 역할은 미약한 실정이다. 많은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2014.7~2017.7) ICOLD부총재와 APG-ICOLD 의장으로 한국대담회의 위상을 알리고 국제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3년 동안의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한국대담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